

브라질 환경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

Environmental Market Entry Strategy of Brazil

이상용
Sang-Yong Le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지원팀

International Business Cooperation Team,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

1. 서론

1.1. 21세기 환경시장의 주역 브라질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2009년에 남미 최대국가인 브라질을 21세기 환경시장의 주역으로 판단하여 환경현황 및 환경시장 조사를 수행하였다. 브라질의 경제규모는 1조 9천억달러(2008년 기준)로 추정되어 세계 9위에 해당하며,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적자원을 보유한 남미 최대 규모의 시장을 자랑한다. 또한 룰라정권(2003~2010년) 집권이후 정치 경제의 안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다. 이같은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및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4년마다 계획 중인 경제성장촉진정책(PAC)에 따라 폐수처리 및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와 폐기물 처리 등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대선 및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등 연이은 주요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도심 위생시설 및 환경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투입될 비용은 총 760억 달러에 달한다. 2009년 미국 EBI¹⁾사의 분석에 따르면 브라질 환경시장의 규모는 총 15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반면, 지리적 접근성과 “브라질코스트²⁾”로 인하여 사업여건에 애로사항이 존재하며, 다국적 기업 및 경쟁국의 업체들이 환경시장을 상당부분 잠식하여 시장 공략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브라질은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국가로 정경유착이 심한 편이며, 지하경제도 남미국가들 중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장규모 분석이 어려울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브라질 환경시장은 매우 유망하다. 브라질 환경시장은 경제의 안정에 따라 환율 및 금리가 점차 안정화 되고 있으며, 2010년 대선을 비롯하여 월드컵과 올림픽 개최는 브라질 환경분야의 인프라시설 투자를 크게 확대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 진출을 준비 중인 환경산업체는 브라질의 특성상 준비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진출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환경산업 및 기술의 브라질 환경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브라질 및 브라질의 환경현황 소개, 브라질의 유망 환경시장 분석, 국내 환경산업체의 브라질시장 진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성장하는 브라질 환경시장

2.1. 브라질 국가개황

우리나라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브라질은 연방공화국으로 브라질리아 연방특구를 포함하여 27개 주(州)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850만km²로 한반도의 약 38배에 달한다. 브라질의 인구는 1억 9266만명으로 세계 5위 수준이며, 남미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에는 약 1,800만명, 세계 3대 미항 중의 하나인 리오데자네이로에는 600만명, 그리고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에는 약 24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1) EBI :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 (<http://www.ebiusa.com>)

2) 브라질 코스트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브라질 사회 전반적인 부대비용을 의미하며, 높은 세금, 관료주의, 복잡한 법체계, 사업추진을 위한 기간, 인프라마비 등을 말한다.



브라질의 경제규모는 1조 9천억달러(2008년 기준)로 추정되어 세계 9위에 해당하며, '자원의 보고'라 불릴 만큼 풍부한 지하자원, 농수산물자원, 임업자원 등 천연자원을 보유하여 남미 최대 규모의 경제력과 시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은 헤알화(Real)를 사용하며 1헤알은 약 600원 수준이다. 브라질의 주요 수출품은 곡류, 육류, 기계류, 철광석, 목재, 설탕, 커피, 자동차, 항공기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광물성연료, 자동차, 전기기기, 유기화합품, 광학정밀기기, 의약품 등이다.

브라질은 룰라정권(2003~2010년) 집권이후 정치 경제의 안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이다. 2009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도 브라질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도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5%대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IMF, 브라질 중앙은행)에 따라 해외의 주요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판정을 받고 있다.

브라질 외교정책의 기본목표는 국가주권 수호 및 강화, 국제 및 지역 공동체 협력강화,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가경제발전이다. 상기 목표하에 국익극대화 및 남미지역수장으로 국제적 위상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미공동

시장(Mercosur)을 중심으로 남미통합을 위한 다방면 외교에 주력하고 있으며, 개도국과 연대를 강화하여 개도국 이익(G-20 그룹 형성 주도)의 대변자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경제외교에서는 외채문제 해결 및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확대, 선진자본 및 기술도입을 추진하는 등 실리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이며,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입장을 확보한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은 2009년 수교 50주년이 되었으며,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첫 브라질 방문을 시작으로 양국정상 교환방문이 시작되었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브라질을 방문하여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간 '포괄적 협력관계'를 재확인하였으며, 2009년 7월 23일 한- MERCOSUR TA 추진 협의 MOU를 체결하였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브라질의 7위 수입대상국인 동시에 18위 수출대상국이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수출은 전년대비 69.9% 증가한 59억2천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대비 56.8% 증가한 43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대 브라질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브라질 경제의 호조세 지속과 해알화 강세현상, 우리기업의 현지투자 확대가 주로 기인한다.

2.2. 환경시장 성장의 원동력

브라질 환경시장을 21세기 세계환경시장의 주역으로 꼽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 개최에 따라 환경위생시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월드컵과 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 및 인프라시설에 투자되는 총 비용은 1,300억 헤알(약 7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 규모는 지난 2003~2009년 간 브라질의 인프라시설에 투자된 총 비용(1,160억 헤알)보다 높은 수준이다.

둘째, 최근 브라질은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2002년 브라질-독일 상공회의소에서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질의한 1,012개 업체 응답자 중 90% 이상이 본인들의 회사에 환경관련 이슈들이 '매우중요하다' 혹은 '중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브라질은 UN환경프로그램 지원자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2007년 192,670달러에 비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기후변화 대응사업과 관련해서는 CDM 프로젝트 투자확대를 위하여 1.5~2.3억달러 규모의 브라질 지속가능기금(FBS)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 브라질 내 2,800개 기업이 ISO14001인증(환경경영표준)을 받았으며, 신 산업정책은 금융, 보건, 건설부분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특히, 건설부분 산업 정책은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사업 착수 전에 환경영향평가(EIA)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경시장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셋째,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도시개발에 따른 환경상품 및 환경서비스 분야의 수요 증가를 들 수 있다.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른 심각한 수준의 환경오염은 환경정책·규제의 도입 및 강화를 촉진시키고, 환경범죄법에 따라 환경규제 불응시 벌금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환경오염방자치제시설 및 친환경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넷째, 외국기업의 환경산업진출 기회가 증대되고 있다. 최근 브라질은 환경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공공부문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별 환경서비스의 제공 편차가 심

각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브라질의 환경산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및 합작회사 형태의 외국기업 진출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2.3. 브라질 환경시장 동향

브라질은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및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4년마다 계획 중인 브라질 경제성장촉진정책(PAC)에 따라 폐수 처리 및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투자와 폐기물 처리 등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2010년 대통령선거 및 2014년 월드컵 개최, 2016년 올림픽 개최 등 연이은 주요 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도심 위생시설 및 환경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4년 월드컵 및 2016년 올림픽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투입될 비용은 총 760억 달러에 달한다.

2009년 미국 EBI³⁾사의 분석에 따르면 전통적인 환경시장과 신재생에너지 및 물산업 전체 시장을 포함한 환경시장의 규모는 총 15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였다. 2007년 영국무역투자청(UKTI)에서 조사한 브라질 전통 환경시장의 규모는 49억 달러로 EBI사의 조사결과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시장과 물산업 중 상하수도 공익설비 및 산업용수 분야만을 포함하여 추정할 결과이기 때문이다.

영국무역투자청의 분석결과 상하수도 공익설비 분야가 23억달러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도시정화 및 공공폐기물 관리 분야가 20억 달러로 큰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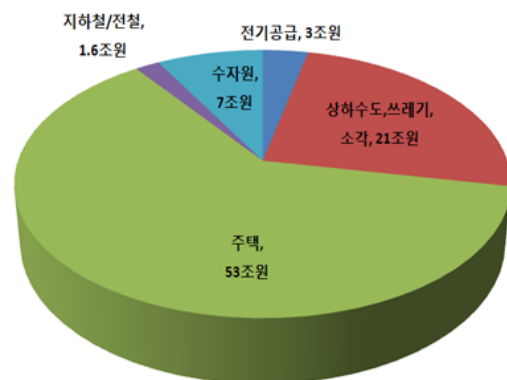


Fig. 1. 2008~2010년 PAC 인프라 투자금액.
 출처 : 브라질 재무부, "2008~2010년 인프라투자금액", www.fazenda.gov.br, (2008)

3) EBI :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 Inc.(www.ebiusa.com)



Fig. 2. 2016년 브라질 Rio 올림픽 경기장 조감도.
 출처 : 브라질 리우올림픽 공식 사이트, www.rio2016olympics.com, (2009)

Table. 1. 2007년 브라질 주요 환경시장 분야별 규모

| 세부분야 | 2007 | |
|-------------------|----------------|---------------|
| | 시장규모 (억 달러) | 향후 5년간 성장률(%) |
| 물/폐수 | 23 | 15% |
| · 상하수도 공익설비 | 23 | |
| · 산업용수 분야 | 3 | |
| 고형폐기물 관리 | 25 | 15% |
| · 도시정화 및 공공폐기물 관리 | 20 | |
| · 민간부분 투자 | 5 | |
| 대기오염정화 | 0.4 | 20% |

출처 : 영국무역투자청(2008)

브라질의 주요 환경산업인 물 공급 및 폐수처리 분야의 시장규모는 23억 달러(2007년 기준)로 추정되며, 브라질 환경 분야 투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담수(세계의 15%)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시설 서비스 제공률은 2006년 기준 도시인구의 48.3%에 불과하며 폐수처리율은 32.2%에 그치고 있어, 향후 20년 이내에 최소 연간 40억 달러가 상하수도 사업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 정부의 목표는 브라질 시민 모두에게 정화시설을 보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2020년까지 820억 달러의 비용이 책정되었으며, 총 비용의 30%는 장비, 펌프, 파이프 등의 교체에 쓰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브라질의 경제성장촉진프로그램(PAC)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폐수 및 하수처리시장에 약 184억 달러

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2007년 고형폐기물관리 분야의 시장규모는 약 25억 달러이며, 생활폐기물 및 유해폐기물의 수거, 처리 및 최종 조치는 브라질 정부의 당면과제이다. 브라질의 폐기물 재활용률은 5% 미만이며, 생활폐기물의 약 40%만이 처리 또는 적절한 최종 매립단계를 거치고 있다. 영국무역투자청의 분석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매일 발생하는 고형폐기물의 양은 6만 톤~9만톤으로 추정되며, 도시폐기물의 70%가 수거되고 23%만이 위생매립지에서 처리되고 있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같이 열악한 폐기물 처리문제로 인하여 식수오염사례와 어린이 질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3. 브라질 환경시장 분석

3.1. 브라질 환경시장의 SWOT 분석

지금까지 브라질 국가개발, 브라질 환경시장 성장의 원동력, 브라질 유망 환경시장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브라질은 연간 최대 151억 달러에 달하는 환경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 및 대규모 국제행사 등 연이은 주요행사가 계획되어 있어 환경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브라질코스트"등 사업여건에 애로사항이 존재하며, 다국적기업 및 경쟁국의 업체들이 환경시장을 상당부

Table. 2. 브라질 환경시장의 SWOT 분석

| | | |
|--|---|---|
| <p>강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10위권의 경제규모 · 연간 최대 151억 달러에 달하는 환경 시장 · 세계 5위 수준의 넓은 국토와 인구 · 룰라 정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 · 외국기업에 개방적인 시장구조(다문화사회 특성) ·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 · 중남미 지역 진출을 위한 거점 지역 · 풍부한 천연자원 |  | <p>약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코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법체계, 높은 세금과 금리, 관료주의, 인프라미비 등 · 지역간 극심한 빈부의 격차(벨런디아) 및 환경시설 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분야 기술 및 노하우 부재 · 정부의 환경개선 계획을 추진할 자원 부족 · 브라질에 대한 정보부족 · 매립지 및 플랜트 건설시 환경부 허가가 어려움 · 지리적 접근성(지구반대편에 위치) |
| <p>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월드컵, 2016년 올림픽 개최에 따른 환경, 위생시설 수요 증가 · 2010년 대통령 선거시 인프라 사업확대 · 경제성장촉진정책(PAC)의 수행으로 수질, 상하수도, 폐기물 분야 정부투자 증대 ·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환경산업에 대한 수요 증대 · CDM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음 · 국제개발은행과 미주개발은행 등의 브라질 환경개선 지원 | <p>위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국적기업의 환경산업진출 증대 · 정부의 부정부패 및 정경유착 · 중국, 멕시코 등 경쟁국가의 환경산업 경쟁력 상승 · 지하경제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장분석이 어려움 ·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음 | |

분 잠식하여 시장공략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다음 Table 2 는 브라질 환경시장의 SWOT 분석 결과이며 이를 통해 환경 시장의 진출여건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Table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브라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 및 세계5위 수준의 넓은 국토와 인구조로 인하여 연간 151억 달러라는 남미 최대 규모의 환경시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룰라정부(2003~2010년) 이후 정치적인 안정으로 최근 경제성장 및 금리가 안정화 되고 있다. 또한 경제의 발전 및 각종 국제대회로 인하여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환경산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남미의 거점 국가이면서 외국기업에 친화적인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미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환경산업체가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한 국가이다. 이 같은 강점을 지닌 브라질은 대규모 국제행사로 인한 환경산업의 수요 증대뿐만 아니라 2010년 대통령선거로 인하여 도시인프라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CDM사업에도 관심이 높기 때문에 CDM 사업과 연계한 환경시장 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브라질 환경시장의 SWOT분석 결과 향후 10년간이 브라질 환경시장의 진출 기회로 평가된다. 브라질 경제의 안정화에 따라 환율 및 금리가 점차 안정화 되고 있으며, 2010년 대선을 비롯하여 대규모 국제행사의 개최는 브라질 환경분

야 인프라시설 투자를 크게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브라질 진출을 준비 중인 환경산업체는 브라질의 특성상(브라질 코스트) 준비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진출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인적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브라질은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제로 정치, 경제, 정부가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인적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브라질은 이런 인맥을 같이 의지하면서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어쩔 수 없이 사기나 계약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했을지라도 정치, 경제, 정부 등 모든 분야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또한 브라질은 정식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지만,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도시가 발달한 남동쪽 및 남부지역 지자체와의 인적네트워크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브라질의 환경사업은 대부분 시단위로 이루어지며, 정부는 정책적인 큰 틀을 정해주는 수준이므로 지자체와의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면 환경시장진출에 큰 도움이 된다.

브라질 환경시장 진출분야로는 상하수도 및 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및 매립장 건설사업이 유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브라질 환경시장 중 정부투자가 큰 분야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수질 및 폐기물 분야

사업이며, PAC계획에 따르면 2008~2010년 상하수도, 폐기물, 소각, 수자원 분야에 투자되는 금액은 약 527억 헤알(26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정부는 CDM사업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폐기물 처리가 문제가 됨에 따라 폐기물 자원화 관련 CDM사업에 관심이 높다. 따라서 메탄가스추출, 폐기물 전처리시스템(MBT) 등 관련분야 환경산업체의 브라질 진출시 CDM사업과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브라질 자원개발은 국내 전략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사업이므로 브라질 환경시장 진출시 주요 발주처인 브라질 지자체와 자원개발 연계방안을 논의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3.2. 브라질 환경시장 진출방안

이 장에서는 브라질의 사업여건, 환경현황 및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국내 환경산업체가 브라질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진출방안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브라질 환경시장 진출방안) |
|----------------------------|
| ① 충분한 사전조사 실시 |
| ②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접근 |
| ③ 유망환경시장 우선 진출 |
| ④ 주요 로비스트 발굴 및 인맥 구축 |
| ⑤ 국내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프로그램 적극 활용 |
| ⑥ 동반진출 모색 |
| ⑦ 브라질 주요 환경전시회 참여 |

① 충분한 사전조사 실시

브라질은 환경법규는 물론 일반관습이나 제도 등 우리나라와 현격하게 다른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요건으로 인하여 브라질 현지에 적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브라질 환경시장 관련 정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생활방식이나 소비성향, 비즈니스 에티켓 등 포괄적인 숙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브라질 환경시장에 대한 사전조사는 가능한 많은 부분에 대한 정보 습득을 위해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브라질 환경법은 복잡하며, 규제가 까다롭기 때문에 브라질 진출을 위해서는 충분한 숙지가 필요하다. 특히 환경범죄법의 경우 위반시 외국인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브라질에는 통일적인 대외무역관리법이 없으며, 200여개의 법률, 법령, 결의 및 고시 등에 의해 대외무역이 관리되고 있으므로 무역 관리제도가 자주 변동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조세제도 또한 우리나라에

없는 항목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관세의 경우 대외무역 공동관세를 사용하며, HS코드가 아닌 NCM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분류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②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적으로 접근

브라질은 관료주의적 관행이 강해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 브라질은 라틴계통 민족 특유의 느긋함으로 인해 브라질 정부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행정처리도 매우 느리다. 따라서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거나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③ 유망환경시장 우선진출

브라질은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하여 폐기물 및 산업폐수 처리와 상하수도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로 인해 도시지역의 환경·위생시설에 대한 투자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폐기물 분야 시장은 폐기물 에너지화 및 폐기물 소각시설과 전처리시스템(MBT)분야의 진출이 유망하다. 브라질은 폐기물자원화에 관심이 많으며, 특히 CDM사업과 연계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연간 50만톤이 발생하는 유해폐기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소각 및 Co-Processing분야가 유망하다.

브라질 상하수도 처리시장은 도시화 및 월드컵 등 국제대회 개최를 위하여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하수 처리시장이 연평균 13.7%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상수도 처리시장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막여과시설 보다는 일반여과 및 정화시설이 상수도처리 분야의 85%를 차지한다. 도시 하수처리시장은 2차 처리분야 시장이 가장 규모가 크지만 최근 슬러지연료화 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슬러지 처리분야가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브라질 산업용수 및 폐수처리시장은 브라질 경제가 성장하면서 연평균 7.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산업용수 처리시장은 산업계에서 초순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막여과 기술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막여과 기술은 가격 및 기술친화도 등을 고려하여 상수도 분야보다는 산업용수 처리시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산업폐수 처리시장의 경우 2차 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산업체의 기술투자 확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④ 주요 로비스트 발굴 및 인맥 구축

브라질은 이민국가로서 주요 사업 및 프로젝트가 인맥을 통해 추진되고 핵심정보 또한 인맥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유된다. 따라서 환경산업 발주기관 출신 인사나 각 분야별 영향력 있는 인사 발굴 및 인맥 구축을 통한 사업 추진이 효과적이다. 브라질 진출 주요 기업들도 유력인사 채용을 통해 로비활동 및 정보입수, 마케팅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브라질 법체계나 상관습을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하여 로펌이나 전문컨설팅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브라질은 규정이나 제도가 자주 바뀌므로 로펌이나 전문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 변화에 대비하면서 초기 투자, 진출계획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대비책 마련해야한다

⑤ 국내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지원프로그램 적극 활용

브라질 환경시장 진출시 국내 유관기관의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좀 더 빠르고 비용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해외진출프로그램은 부처 및 기관 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기관 및 프로그램을 선정해야한다.

국내의 수출유관기관은 해외기업신용조사(한국수출보험공사), 상담 및 컨설팅(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출입은행, KOTRA, 한국산업은행 등)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⑥ 동반진출 모색

브라질 진출은 사전조사를 위한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현지 진출 경험이 풍부한 기업이나 브라질 진출을 준비 중인 대기업과 협력하여 동반 진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및 현지 업체와 제휴는 초기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현지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시장 진입이 훨씬 수월해 진다. 브라질 지자체 등에서 발주한 사업에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입찰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내 대기업이나 현지 주요업체와 협력하여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브라질에 동시 진출할 경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한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동종 업종 외국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킹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⑦ 브라질 주요 환경전시회 참여

환경전시회 참여가 바로 사업의 기회가 되지는 않으나, 브라질의 주요 환경전시회 참여를 통하여 브라질 환경산업 정

보조사 및 네트워크구축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 국제 환경전시회(FIMAI)는 남미 최대 환경전시회로 해마다 행사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FIMAI는 매년 11월에 개최하며 2009년이 11회 째이다. 2009년 행사에는 400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상담건수는 870건, 상담총액은 '08년 대비 약 20% 늘어난 8억 4000만 헤알(4억 3천만 달러) 규모였다. '09년 전시회에는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업체가 부스를 설치하였으며, 독일, 영국, 아르헨티나,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미국 등지로부터 다수의 무역 사절단이 전시장을 방문하였다.

4.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21C 환경시장의 주역인 브라질의 환경현황, 유망 환경시장분석 결과 및 브라질 시장진출방안 등을 소개하였다. 이는 국내 환경전문가들에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브라질 환경시장의 잠재성을 소개하고, 향후 10년간 세계 환경시장의 이슈가 될 브라질 환경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브라질 진출전략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브라질 진출을 위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브라질 환경시장 진출은 지리적 요소, 경제여건, 복잡한 관련 법규, 느린 행정절차, 인맥의 중요성, 언어문제, 정보부족에 따른 제한적인 시장조사 등으로 인해 진출이 어렵고 현지정보 입수도 제한적이므로, 계획단계부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사업성여부를 판단하고 진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사전조사 단계와 현지조사단계 그리고 실행계획 단계 등 체계적인 진출전략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브라질 환경시장 중 매우 단편적인 부분만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정보의 부재로 브라질 환경시장 진출을 어려워하고 있는 브라질 국내 환경산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KSEE

참고문헌

1. 국회예산정책처, "지하경제의 개념, 현황, 축소방안"(2009).
2. 권기수, "브라질 인프라투자촉진법(PPP)의 주요 내용과 특징", 「KIEP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2).

3. 김영철,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 활용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12).
4.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8년 브라질 환경시장 현황분석(프랑스 경제상무관 자료 번역)", 「해외산업정보 산업별 정보」 (2008.8).
5. 수출입은행, "남미 자원부국의 국가현황 및 진출방안 - 브라질 페루"(2008.11).
6. 조희문, "브라질 환경시장 동향 및 진출방안", 환경산업 해외시장 진출 설명회 자료,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09.12.17).
7. KOTRA 상파울루 KBC, "브라질 유망 환경시장 정보", 조사대행 사업 요청자료, (2009.12).
8. KOTRA, "중남미 플랜트시장 진출방안", 「Global Business Report 09-021」, (2009.7).
9. KOTRA 상파울루 KBC, "브라질 경제 및 한-브 교역동향"(2009.6).
10. KOTRA, "브라질 비즈니스 가이드"(2007.7).
11. OECD, "Latin American Economic Outlook 2009"(2009).
12. UKTI(영국무역투자청), "Brazil Business Guide"(2008) .
13. UKTI(영국무역투자청), "Market opportunities in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renewable energy, carbon finance and CATs", Country report: Brazil(2008).
14. 環境問題に関するOECD加盟国等の貿易保険制度調査報告書, 財団法人 地球・人間環境フォーラム(2007.2).
15. 브라질 개발상공부 "수출입동향" : www.mdic.gov.br(2009).
16. 브라질 재무부, "2008~2010년 인프라투자금액" : www.fazenda.gov.br(2009).
17. 주 브라질 대사관 "브라질 개관" : bra-brasil.mofat.go.kr(2009).
18. 브라질 리우올림픽 공식 사이트, www.rio2016olympics.com(2009).